

#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 연구

##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

오문경\*  
odery0108@skku.edu

이경수\*\*  
kslee@knou.ac.kr

문희진\*\*\*  
moonh@dpc.agu.ac.jp

### <目次>

- |                        |                           |
|------------------------|---------------------------|
| 1. 서론                  | 4. 일본 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발전방향 |
| 2.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 4.1 현장 전문성 강화             |
| 2.1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위상 | 4.2 교육 내용의 현지화            |
| 2.2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인식 변화 | 4.3 일본 내 경력 교원의 인적 자원화    |
|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현황과 변화  | 5. 결론                     |
| 3.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현황     |                           |
| 3.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변화     |                           |

주요어: 한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한국어교원 자격제도(Korean Language Teacher's Qualification System), 교원양성과정(Training Program of Language Teachers), 한국어 교원(Korean Language Teacher), 교육 실습(Educational Practice)

## 1. 서론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살펴보고, 일본의 특수성과 현지화를 강화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해외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의 기관에서의 한국어 전공 및 교양 수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467개(37.6%)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국가이다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제1저자  
\*\* 방승통신대학 일본학과 교수  
\*\*\* 아이치기쿠인대학 교양부 부교수, 교신저자

(이정란, 2017). 이 수치는 2위인 중국 270개(21.5%)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전개되는 1차, 2차, 3차 한류 붐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그 이전 지속되어 온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역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초부터이다. 대마도의 대조선 외교 담당 보좌관이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 芳洲)는 메이지 시대의 조선어 교재로 ‘교린수지(交隣須知)’를 개발하였으며, 20세기 전반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오구라 신페이(小倉 進平),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등의 일본 학자들이 이룬 한국어학 분야가 광복 이후 시작된 일본 내의 한국어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광복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재일한국인에 의한 민족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에는 일본인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80년대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어 붐이 일었으며 90년대에는 민간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민간단체 등에서도 한국어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었다(하세가와, 2019).

2000년대에 들어 일본에서 한류 붐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 수는 물론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도 급증하였다. 또한 2002년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도입되면서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등으로 양적인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최근 한일 간 갈등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층은 증가하면서 식지 않는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2005년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고 동법 내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9년 8월 현재 44,976명이 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한국어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1)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98개(7.9%), 몽골 및 대만 각 32개(각 2.6%), 러시아 30개(2.4%), 태국 25개(2.0%)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도 일본은 357개(43.3%)로 2위인 중국 92개(11.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를 보였다(이정란 2017). 이는 한국어가 일본의 정규교육 내에서 제2외국어로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2) 「冷めぬ韓国語熱 日本の若者、Kポップなどに関心高く」日本経済新聞(2019.11.21)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052423000Q9A121C1AC8Z00/\(2020.1.20검색\)](https://www.nikkei.com/article/DGXMZ052423000Q9A121C1AC8Z00/(2020.1.20검색))

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물론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즉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연구는 대학의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외국어 교수·학습의 3대 요소인 교사, 학습자, 교재 중에서 학습자에 주목한 연구(오기노 신사쿠, 2015; 김수정, 2004; 심보 토모코, 2012; 朴珍希, 2016, 2017; 文嬉眞·金美淑, 2015, 2016, 2018, 김다정(2018)와 교재에 주목한 연구(김수정, 2005; 박소연, 2011, 나가하라 아유미·윤정민, 2012)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사’에 대한 논의는 중등학교 한국어교육에만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sup>4)</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 대학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교사’에 주목하고,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분석하여 일본 내 자격 취득의 어려움을 밝힘으로써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 2.1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위상

2019년 현재 일본 내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위상은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의 증가로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청자는 10~2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5년 연속 증가를 보이며 2019년 2만 7천명으로 신청자가 10년만에 2.6배가 되었다. 또 한국어 과정이 있는 대학과 전문학교도 지원자가 늘고 있어 한국어는 외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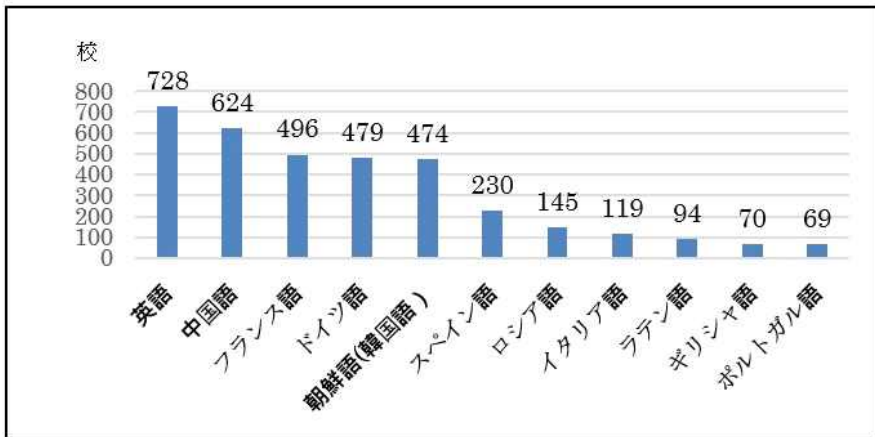
일본 대학에서 추진하는 외국어교육은 국제사회에 대응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적극적

4)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원과 관련된 논의는 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 내에서 한국어 교직과정인 2019년 11월 현재 전국에 6개소에 불과한 점, 한국어 교직을 이수해도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 한국어 교원자격이 아니라 기한부 특별면허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 대학에서 중등교원 교원을 양성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학적 접근이 미약하다는 점(하세가와, 2019) 등이며, 대학의 한국어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5) 「冷めぬ韓国語熱 日本の若者、Kポップなどに関心高く」日本経済新聞(2019.11.21)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2423000Q9A121C1AC8Z00/\(2020.1.20](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2423000Q9A121C1AC8Z00/(2020.1.20) 검색)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일이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소통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외국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대학에서는 종래에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교육에서 영어교육과 양립하는 형태로 ‘제2외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도 제2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

2014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한 4년제 대학의 제2외국어의 실시 상황은 <그림 1>과 같다.<sup>6)</sup> 실시 상황을 보면 먼저 중국어가 624개 대학(81.7%)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프랑스어 496개 대학(64.9%), 독일어 479 대학(62.7%), 한국어<sup>7)</sup> 474 대학(62.0%), 스페인어 230 대학(30.0%), 러시아어 145대학(19.0%) 순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일본 대학에서의 진행되는 주요 ‘제2외국어’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4개 언어이며, 한국어는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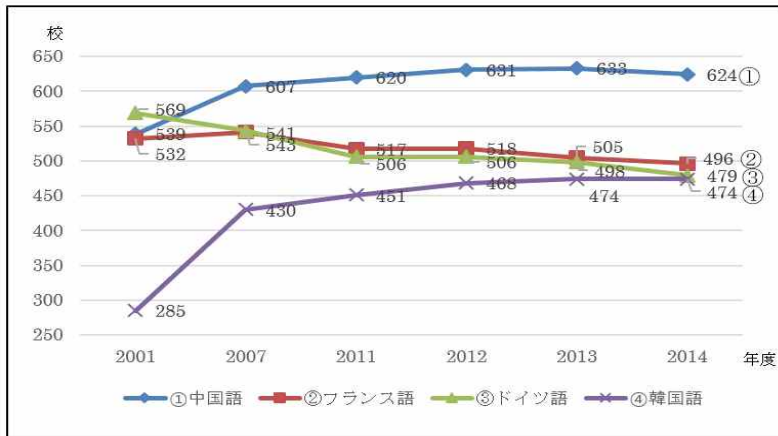
<그림 1> 4년제 대학에서의 외국어 실시 상황(2014년 조사)

한편 일본 내에서 한국어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대학에서의 제2외국어 실시 변천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 2><sup>8)</sup>와 같다.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1년에

6) 그림 1은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 ‘대학에서의 교육 등의 개혁 상황에 대하여’(2014년)의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국/공립, 사립 775개 대학 중 764개 대학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다.  
 7) 일본에서는 한국어에 대해 ‘한국어, 조선어, 한글, 조선/한국어’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조선/한국어’ 양쪽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8) 일본 문부성에서 조사한 2001년부터 2014년 ‘4년제 대학에서의 외국어 실시 상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일본 문부성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최신 자료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조사된 자료는 있음

는 일본 내에서 제2외국어를 실시한 대학은 총 671개였으며 이 중에서 독일어를 실시하는 대학이 569개 대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중국어가 539개 대학, 프랑스어가 532개 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어가 총 285개 대학에서 실시되었다. 2014년 현재 한국어는 1위인 중국어(624개 대학), 2위인 프랑스어(496개 대학), 3위인 독일어(479개 대학)에 이어 순위로는 여전히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 추이로만 보면 다른 외국어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1년에는 285개 대학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07년에는 430개 대학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474개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2001년의 개설 대학 수와 비교하면 약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크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제2외국어교육의 실시 상황의 변화(2001년~2014년)<sup>9)</sup>

이와 같이 일본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진 주된 이유로 한류를 지목하고, 한류가 외국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중 文嬉眞·金美淑(2018)의 연구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치 변동이 수강자의 학문적인 동기보다는 오히려 비학문적인 변동 요소 즉 정치와 문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로 2019년

나 현재 공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19년 11월).

9) 文嬉眞·金美淑(2018)에서 발췌한 것이다.

현재 일본 대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 시절 한류 문화 붐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점, 지금도 제3의 한류 붐을 체험하는 동시대적인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BTS 등으로 제3의 한류 붐에 익숙한, 즉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이 존재하는 한 일본 내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앞으로도 그 위상과 일정한 지위를 유지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가 동기가 되는 젊은 층을 위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발전을 견인할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2.2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일본 대학의 인식 변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2006년 시행된 이후로 2019년 5월 현재 44,976명의 한국어교원을 배출하였으며<sup>10)</sup> 명실상부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증명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sup>11)</sup>이기는 하나 일본 대학의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유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본 내 한국어 강좌의 폭발적인 발전 시기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개시 시기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2.1절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즉, 2001년 285개→2007년 430개→2014년 474개로 한국어 강좌 개설 학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급격하게 증가한 2007년은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시행한 바로 다음 해였다. 따라서 일본 대학에서는 2007년 이전 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정착되기 훨씬 이전에 학위와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대규모 한국인 한국어 교원 채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한국어 강좌 개설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이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어 교원이 여러 학교에 겸직을 하게 되면서 이후 한국어 교원으로서 전문성을 키우려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10)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11) 2014-2018년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어 교사들의 요청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청으로 개설되었으며, 2018 후쿠오카한국교육원의 한국어교사연수회의 주제를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이 되었는데, 최근 일본의 한국어 학교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높다는 교육원장님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관심은 국내 사이버대학교 6개를 분석한 결과 국외 예비 교원 중 일본의 수강자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정란(2017) 나타나고 있다.

굳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관심을 두면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중요성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이 교사 임용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만을 임용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한국어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며(김민수, 2015:31) 이는 일본 대학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9년 일본의 立教大学에서 한국어 교사 채용 시 요구한 ‘이력서 기재요령’이 그 예이다.

<p>V 学 歴 (立教大学 履歴書記載要領)</p> <p>1. 高等学校卒業から記載してください。なお、大学院博士課程に在学した場合は、①修了、②単位取得退学、③中途退学の種別と年月日を記載してください。</p> <p>2. <u>教育機関等で当該言語教育の教員養成講座等を受講している場合は機関名、講座名、受講期間を記載してください(日本国内外を問いません)。また、修了証を所持している場合はコピーを提出してください。</u></p> <p>...</p> <p>VII 職 歴</p> <p>4. 当該職歴のうち<u>海外における教育活動・研究活動の期間がある場合は、必ずその期間および活動内容について記載するとともに、「海外での教育研究歴」欄に「○」印をご記入ください。</u></p>
--

일본 立教大学の ‘이력서 기재요령’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채용 조건인 학위와 함께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원양성과정’ 등을 수강한 경력을 기입하고, 수료증을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해주는 자격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연구 실적도 해외에서의 연구 활동과 교육연구 경력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등 외국에서의 교육과 연구 경력을 통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보유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학위 취득자가 일본 대학에 교원으로 직접 채용되거나 한국 대학에서 파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일본 대학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sup>1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현황과 최근 강화된 ‘실습 교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발전방향을 논할 것이다.

### 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현황과 변화

#### 3.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현황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인을 갖추었는지를 실시하여 자격을 보완하는 제도(시행 2005.07.28)이다.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 한국어교원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사<sup>13)</sup>와는 달리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하고 동법에서 시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일반 교원과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 다섯 가지 영역(한국어학(1영역),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2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3영역), 한국 문화(4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5영역))의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하고(표 1), 이수 시간이 120시간을 넘은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육능력시험<sup>14)</sup>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3급의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하여 다섯 가지 영역별로 총 21학점을 취득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2) 예를 들어 일본 나고야상과대학, 시마네현립대학, 독협대학, 센다이대학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13)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자격에 따르면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교사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로 나뉘는데 이들은 ‘과학기술령’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는다.

14)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1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이 시험의 시행기관은 문체부에서 위탁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교원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은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다. 시험 시기는 연 1회로 1차(시험)은 8월 말, 2차(면접)은 11월 초에 진행된다. 시험 내용과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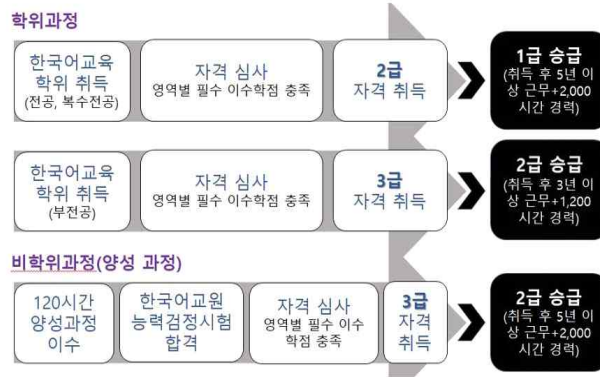
<표 1> 한국어교육의 영역별 과목(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3항)<sup>15)</sup>

영역	과목 예시
1영역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2영역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 표현/이해/발음/어휘/문법교육법,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 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4영역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연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필수) 오프라인 현장 실습(참관 또는 실습), 모의수업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pp.63-70 참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한 방법과 3급에서 승급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어교육을 주(복수)전공으로 하여 대학(원)에서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영역별로 이수하고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 받는 방식이다. 승급을 통한 방법은 먼저 부전공으로 학위를 받아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동안 1,20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고, 비학위과정(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동안 2,00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을 때 심사를 통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 1급 자격은 승급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한데,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1차(필기) 시험	2차(면접)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li> </ul> </li> <li>○ 1차 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li> <li>-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li> <li>- 인격 및 소양</li> <li>- 한국어능력 평가</li> </ul> </li> </ul>

15)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어교원자격국어기본법’ 시행령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https://kteacher.korean.go.kr/info/noti13/noti132/\\_/view.do](https://kteacher.korean.go.kr/info/noti13/noti132/_/view.do)(2020.1.20. 검색)



<그림 3>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흐름<sup>16)</sup>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한국어교원 취득자 현황은 2006년 처음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863명에서 2019년 8월 현재 총 44,976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중 1급 1,763명, 2급 32,592명, 3급 10,62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양성한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역시 자격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학(원) 전공학과가 40개, 양성기관이 34개에서 2019년에는 대학(원) 전공학과가 237개, 양성기관이 227개로 크게 증가하여 자격증 취득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표 2>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현황(국립국어원, 2019년 9월 현재)<sup>18)</sup>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
자격증 취득자 수	868명	639명	842명	1,037명	2,157명	1,810명	2,337명	3,139명	4,566명	5,837명	6,102명	6,211명	6,685명	2,746명	44,976명
	1급: 1,763명, 2급: 32,592명, 3급: 10,621명														
대학(원) 전공학과	40개소	-	69개소	-	82개소	97개소	123개소	145개소	162개소	181개소	184개소	202개소	218개소	237개소	237개소
단기 양성기관	34개소	-	54개소	-	114개소	131개소	154개소	160개소	178개소	188개소	202개소	213개소	221개소	227개소	227개소

16)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어교원자격제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https://kteacher.korean.go.kr/info/noti12/noti122/\\_/view.do\(2020.1.20.검색\)](https://kteacher.korean.go.kr/info/noti12/noti122/_/view.do(2020.1.20.검색))

17)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18)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2번 자격 심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부터는 1년에 3번 심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이 증가하면서 외국 국적자의 자격자도 증가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5월 현재 외국 국적 자격 취득자는 2,072명(총 37개 국가)이며, 이 중 일본 국적자로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9년 5월 현재 중국 1,592명(76.83%)에 이어 157명(7.58%)으로 외국 국적 전체 38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본인 예비 한국어 교원에게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외국 국적자의 자격 취득 상위 5위 국가(2019년 5월 현재<sup>19)</sup>)

국가	소지자 수(명)	전체 대비 비율(%)
중국	592	76.83%
<b>일본</b>	<b>157</b>	<b>7.58%</b>
미국	89	4.30%
캐나다	38	1.83%
베트남	22	1.06%

일본에서 한국어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는 한 일본 국적의 한국어 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대학의 변화와 함께 한국어교원 자격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어 예비 교원들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지원이나 정보 제공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승급과 관련하여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목록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실습 교과목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한국어 교원 승급과 관련하여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은 국립국어원이 매년 심사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만 해당된다.

2019년 8월 현재 일본에는 대학 36개, 초·중·고등학교 16개, 한국학교 4개, 한국교육원 4개,

19)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세종학당 1개로 총 61개 기관이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어 고시되어 있다. 이 인정 기관은 3.2절에서 다루게 되는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 1월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실습 교과목의 현장 실습 기관으로 권장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표 4> 일본의 한국어 교육 경력 인증 교육 대학(2019년 8월 기준)<sup>20)</sup>

유형(개소)	기관명
대학 (36)	간다외어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게이와가쿠엔대학, 고난대학, 고쿠시난대학, 오카야마대학, 규슈대학 국제부, 기타큐슈시립대학, 나가사키대학, 나가사키준신대학, 나가사키학원 나가사키외국어대학, 니가타국제정보대학, 니가타대학, 니가타의료복지대학, 니가타현립대학, 니쇼가쿠사대학, 도시샤대학, 도카이대학,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 릿쇼대학, 마쓰야마대학, 메이지학원대학, 바이코가쿠인대학, 벳부대학, 붓쿄대학, 시마네대학, 아이치산업대학, 오타루상과대학, 요코하마시립대학, 카나가와대학, 칸다외국어전문대학, 타쿠쇼쿠대학, 세이케이대학, 현립니가타여자단기대학, 효고현립대학, 후쿠오카공업대학
초등고등학교 (16)	가나자와소고고등학교, 간사이외국어전문학교, 게이메이학원중고등학교, 교토외국어전문학교, 구마모토중앙고등학교, 샌다이시라유리고등학교, 센슈대학부속고등학교 슈린외어전문학교, 슌다이관광외어비즈니스전문학교, 시바우라공업대학중학교고등학교, 야마구치현립히비키고등학교, 오비린중학교고등학교, 오사카부립한난고등학교, 오사카외어전문학교, 이와테현립하나마키미나미고등학교, 현립아마가사키공업고등학교
한국학교(4)	건국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동경한국학교, 오사카금강학교
한국교육원(4)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고베한국교육원, 오카야마한국교육원,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세종학당(1)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그러나 고시되어 있는 목록에는 현재 일본에서 왕성하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누락된 경우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동경 지역의 메지로대학의 한국어학과, 동경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파견 실습지원 사업<sup>21)</sup>’의 동경 지역 ‘참관 및 실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향후 일본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수정되어야 하며, 일본 거주자의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0)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경력 인정 기관 목록(2019.8. 기준)’에서 일본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21)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파견 실습지원 사업’은 국립국어원 주관 하에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일본의 경우 2017년에는 일본 나고야와 동경 지역, 2018년과 2019년에는 동경과 오사카 지역의 대학, 한글학교, 세종학당 등에서 참관과 교육 실습이 진행되었다.

### 3.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변화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적, 재정적 이유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공시된 ‘2017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은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습(참관/모의수업) 과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어 예비교원들에게 ‘현장 역량 강화’라는 좋은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 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본 내 거주자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본 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sup>22)</sup>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취득 과정 중 5영역에 해당하는데, 양성기관에서 배운 한국어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 현장에 적용 및 실천함으로써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중요 교과목이다. 새로운 실습 교과목의 핵심은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예비 교원에게 실천적 경험을 통해 습득한 한국어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 대한 현장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원), 학점은행제는 현장 경험(강의실습이나 현장 강의참관)을 전체 실습 교과목 운영 시간 대비 5분의 1(9시간) 이상, 비학위과정은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학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은 강의실습이나 강의참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질의 실습 기관<sup>22)</sup>을 섭외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수업을 담당하는 담당 교수<sup>23)</sup>와 실습 기관의 현장 실습 지도자<sup>24)</sup>의 조건과 역할도 강화되었다.<sup>25)</sup>

22) 실습 기관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경력 인정 기관 목록(2019년 8월 현재)’에 있는 국내외 962개 기관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에는 지역에 경력 인정 기관이 없을 경우에만 매우 예외적으로 한글학교도 인정한다고 한다(국립국어원 전화 확인). 일본의 경우 대학 기관 36개소, 초·중·고등학교 16개소, 한국교육원 4개소, 한국학교 4개소, 세종학당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표 4참고).

23) 한국어 교육 담당 교·강사의 자격 요건은 먼저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인 자, 관련 분야(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다(‘2018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 발췌).

24) 현장 실습 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한국어교원 1급 소지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실습생 관리 및 실습 지도 등을 실시하는 역할이다(‘2018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 발췌).

&lt;표 5&gt; 2017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서의 교과목 구성 및 운영기준

기관	2020년 입학생 적용
대학(원),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9시간 이상 실시 필수(현장 실습 지도사가 실습 지도, 담당 교수가 실습 지도 가능) -오프라인 모의수업 1회 이상 (사이버대학교) 각 지역별로 학생들을 모아 모의수업 진행 가능 (사이버대학교) 국외 거주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모의수업 또는 모의수업 촬영물 대체 가능
비학위과정 (120시간)	-오프라인 강의실습 또는 강의참관 4시간 이상 실시 필수(현장 실습 지도사가 실습 지도, 담당 교수가 실습 지도 가능) -오프라인 모의수업 실시(각 지역별로 학생들을 모아 모의수업 진행 가능 국외 거주 온라인 예비 교원에 한해 온라인 모의수업 또는 모의수업 촬영물 대체 가능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는 예비 교원들이 거주하는 모든 나라의 한국어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내의 집합교육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sup>25)</sup> 이에 일본을 비롯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은 시간을 내어 한국에 들어와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거주국에서 현장 경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 교원이 ‘개인적’으로 강의실습이나 강의참관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섭외하여 한국의 교육기관에 협약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국에 들어와 집합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본을 비롯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에게는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은 일반적인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은 줄 수 있지만 거주국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줄 수 없기에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비 교원은 방학이나 휴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가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25) 기존의 실습 교과목의 적합 여부는 강의 계획서에 기술된 실습 모형 등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담당자 전화 확인).

26) 국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의 경우 시간적 재정적 이유로 사이버대학의 학위 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이 많은 H사이버대학의 경우 예비 교원의 거주 국가의 교육기관을 섭외하지 않고 H사이버대학 산하에서 설립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1년에 2번(방학 기간)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참관수업’을 9시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 예비 교원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는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비 교원이 개인적으로 섭외하게 하는 이유로는 예비 교원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한국어교육기관을 섭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D사이버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국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을 위해 연계 기관을 찾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감수하면서도 실질적인 현장 전문성은 갖추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에게 현장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실행력이 높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 4. 일본 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발전방향

### 4.1 현장 전문성 강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들은 ‘현장 전문성’이 강화된 ‘실습 교과목’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 핵심은 한국 국내의 한국어교육기관이 예비 교원이 거주하는 일본 지역의 한국어교육기관을 발굴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예비 교원의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한국 국내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은 전반적인 한국어교실 상황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예비 교원이 일하고자 하는 일본 지역에 있는 기관의 현장 경험은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교원들에게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일본 지역의 ‘한국어 교육 경력 인증 교육 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비 교원은 교육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에 있는 우수한 한국어교육 기관을 검증하고 한국에 있는 한국어교육 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sup>27)</sup>을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의 협업과 현장의 요구, 예비 교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일본 내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습 교과목’에 대해 구체화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로 자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7) 일본 지역의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단체로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실천하는 ‘일본한국어교육학회(日本韓国語教育学会 <http://jakle.main.jp/>)’, 조선어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표방하는 ‘조선어교육학회(朝鮮語教育学会 <http://jakle.sakura.ne.jp/>)’, 일본 내 한국어강사단체인 ‘한강넷([ハンガンネット https://hangangnett.com/home/](https://hangangnett.com/home/))’ 등을 들 수 있다.

## 4.2 교육 내용의 현지화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및 전문 연수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의 현지화, 즉 일본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은 2014년~2018년에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 양성과정은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을 위한 120시간 과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교원들의 자격증 및 전문연수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개설 과목은 총 31개였으며 2017년에 들어서는 1~4명역을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고, 한국어교육실습에서 오프라인 연수는 강의 참관 8시간, 온/오프라인 모의 수업 12시간으로 수정되었다.<sup>28)</sup> 그러나 이수 과목들을 살펴보면 일본 내의 특이성을 반영한 교과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연 1회, 동경 개최, 약 50여명의 수용이라는 적은 기회, 제한된 지역과 인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sup>29)</sup>

일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들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동기를 높이고, 일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현지화는 필수이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일본 지역의 최신 교재 분석, 교재 연구 및 개발, 교수법의 최신 동향, 실제 수업 사례 분석, 학습 활동 연구 및 개발, 교육 정책 현황, 오류 분석, 한일 대조 분석, 통역/번역’ 등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전문성 강화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8) 온/오프라인 시수가 변경된 것은 2017년도부터였는데, 그 전에는 오프라인 연수기간(약 1주일) 동안 반드시 문화원이 있는 동경에 와서 체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약 1주일 간 생업에 제한을 받고 체재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강의(1명역4명역)를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고 온라인 강좌의 시수(73→102시간)는 늘리고 오프라인 강좌 시수(47→18시간)는 줄였다.(2019년 9월 6일 일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9) 주일한국문화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2014년~2018년 연도별 참가자 및 수료자(2019년 한국문화원 요청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참가자	수료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2014년	50명	42명	6명
2015년	50명	41명	2명
2016년	50명	38명	1명
2017년	50명	31명	1명
2018년	57명	45명	0명
총계	257명	197명	10명



### 4.3 일본 내 경력 교원의 인적 자원화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특수한 조건 하에서 한국어교육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초기에 일본 대학에서 대거 한국어 교원이 채용될 당시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실시되기 전이었으며,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학위가 가장 중요한 채용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부터 시작된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학 연구는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토대가 되어,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일본에서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지에서 실습 교과목을 이끌 수 있는 인적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예비 교원이 아니라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한국어 교원을 위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에 일본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경력 교원들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론적인 전문성을 획득한다면 일본의 한국어교육의 현지화와 이를 통한 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오랜 경력의 교원들은 일본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 교원에게 실습 교과목을 통해 생생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경력 교원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 오랜 한국어교육 경력을 지닌 교원에게는 예비 교원과 다른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실습 교과목보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3영역과 4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과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육 과정 역시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현지화된 교육 내용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요구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며, 자격 제도의 세계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양적인 발전 외에도 일본의 특이성에 기초하여 현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현지화, 토착화, 실용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의의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일본의 특이성과 현지화, 경력이 많은 한국어 교원의 인적 자원화를 통해 일본 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에 대해 논하였다는 데에 있다.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 일본을 위시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들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거주국의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가람(2015)「비원어민 한국어교원 교육의 과제와 방향-중국의 ‘한어국제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이중언어학』59, pp.1-22
- 김다정(2018)「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8년 겨울 우리말학회전국학술대회 발표집』, pp.119-134
- 김민수(2015)「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현황 및 발전 방향」『한국언어문화학』12(2), pp.23-44
- 김민수(2018)「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정책의 발전 방안 연구」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2004)「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규슈대학을 중심으로」『국어교육』113, pp.399-431
- 김수정(2005)「일본의 한국어 교재의 실태와 개발 방향」『한국어 교육』16(2), pp.1-24
- 정희원(2017)「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13-26
- 류승의(2018)「한국어 비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인식 및 발전 방안」『한국어문화교육』11(2), pp.25-60
- 박소연(2011)「이론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분석-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교재를 중심으로」『한국어 교육』22(1), pp.99-121
- 박지순·박정아(2013)「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및 제언」『이중언어학』52, pp.181-220
- 방성원(2016)「한국어 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한국어 교육』72(2), pp.79-103
- 서영애(2018)「국어기본법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제언」『한국어교육연구』8, pp.87-110
- 심보 토모코(2012)「일본 대학교 교양외국어 과목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의 과제」『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pp.89-97
- 안정민·김재욱(2016)「채용 과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사의 자질」『국어교육연구』38, pp.111-142
- 오기노 신사쿠(2015)「일본 대학 내 교양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방향 연구-국립시즈오카대학의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분석 결과를 중심으로-」『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5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66-77
- 오대환(2010)「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국어학』57, pp.203-226
- 오문경·문희진(2019)「일본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과 제언」『제10회 일본한국어교육학회 대회집』, pp.82-88
- 이경수(2019)「2017개정 한국어 교육과정과 의사소통 한국어교재」『제10회 일본한국어교육학회 대회집』,

pp.77-81

이정란 외(2017)「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국립국어원

이혜영 외(2017)「발전기 및 심화기 한국어 교원 재교육」『우리어문연구』59, pp.383-407

최용기(2009)「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인문과학연구』15, pp.41-63

최은규(2013)「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사 재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어문연구』42(1), pp.443-475

하세가와 유키코(2015)「일본의 한국어교육현황과 과제」『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창립기념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집』

하세가와 유키코(2019)「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재와 미래」『일본한국어교육학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2017),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2017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 현황(2019년 5월 기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경력 인정 기관 목록(2019년 8월 기준), 국립국어원

朴珍希(2016)「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に関する研究－大学の韓国語学習者調査にみる現状と課題－」『岡山県立大学教育研究紀要』第1巻1号、pp.21-31

文嬉眞・金美淑(2015)「日本の大学機関における「韓国語学習」－愛知学院大学の「韓国語」選択必修科目に関するアンケート結果とその分析(1)-」『愛知学院大学教養部紀要』第61巻第号、pp.69-84

文嬉眞・金美淑(2015)「日本の大学機関における「韓国語学習」－愛知学院大学の「韓国語」選択必修科目に関するアンケート結果とその分析(2)-」『愛知学院大学教養部紀要』第62巻第号、pp.19-43

文嬉眞・金美淑(2018)「日本の大学における第2外国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の位相と現状－愛知学院大学の必修科目を事例として－」『日本韓国語教育』

---

논문투고일 : 2020년 03월 09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20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20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5월 20일

---

## 일본 내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 연구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

오문경·이경수·문희진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살펴보고, 일본의 특수성과 현지화를 강화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한국어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 발전과 더불어 질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의 특수성에 입각한 현지화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주목하여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발전방향 즉, 일본에서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교육 내용의 현지화 강화 방안, 기존 한국어 교사의 인적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일본을 위시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들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 qualitative development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 Focusing on obtaining Korean teacher qualifications -

*Oh, Moon-Kyoung·Lee, Kyung-Soo·Moon, Hi-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qualification syste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to improv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qualitativel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to the teachers in the ways to strengthen Japan's uniqueness and localization.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is driv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t is positioned as a qualification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n Japan and around the worl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requir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and requires localization based on Japan's uniqueness.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trengthening Korean teachers' competency.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Korean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and analyzed various data to derive the necessity of obtaining Korean teacher qualifications at Japanese universities. Also,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preliminary teachers residing in Japan to acquire qualifications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that is, measures to increase field expertise in Japan, methods to strengthen local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approaches to humanize existing Korean teachers are presented. In the future, we hope that prospective teachers residing abroad, including in Japan, will be able to provide prototypes of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for obtaining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s.